

제1회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제1회

동원 인성교육 집담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연속강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집담회에 동참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5월 18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패컬티 라운지
발표자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제목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주요내용

1. 왜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2. 인성이란 무엇인가?
3.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4. 인성교육의 여러 방향

* 집담회의 참석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술지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
[문의처] ☎ 880-9019, e-mail : hyejin81@snu.ac.kr (명예교수협의회 간사 박혜진)





<제 1회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동원인성교육집담회 개요>

2015년 5월 18일(월)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제1회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는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가 처음으로 주관하였고 동원육영재단이 후원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기술지원한 회의다. 사범대 윤리교육과 진교훈 명예교수가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성과 관련한 동서고금의 다양한 정의와 인성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규 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명예교수들이 인성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4층 패컬티라운지

주제발표: 진교훈(명예교수, 사범대 윤리교육과)

발표제목: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사회: 이인규(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자연대)

토론 정리 : 이상준(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오피니언 리더 대표)

참석자: 이인규(명예교수, 자연대), 최종태(명예교수, 경영대), 이현복(명예교수, 인문대), 정하우(명예교수, 농생대), 진교훈(명예교수, 사범대), 문창규(명예교수, 약대), 오병남(명예교수, 인문대), 최대권(명예교수, 법대), 이종상(명예교수, 미대), 임홍빈(명예교수, 인문대), 이정인(명예교수, 공대), 이장호(명예교수, 사회대), 김병동(명예교수, 농생대), 허승일(명예교수, 사범대), 최차용(명예교수, 공대), 박용안(명예교수, 자연대), 전효택(명예교수, 공대), 정창우(교수, 사범대), 곽정훈(학생, 사범대), 신민섭(교수, 의대), 이정상(교수, 의대), 권석만(교수, 의대), 이상준(인성교육집담회 간사), 박혜진(명예교수협의회 간사), 이지연(명예교수연구실 직원) 이상 25명.



이인규 교수(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자연대 생명과학부)

“우리 사회의 인성문제에 대해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들이 가진 학식과 경륜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해왔다. 그러던 중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인성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치관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붕괴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디지털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포용하면서 인성을 회복시켜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이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모임이 첫 회인데 오늘 모임과 다음 두 번째 모임까지는 인성과 가치관에 대한 총론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교육이라는 이 거대담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은 막연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공영역에서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기초가 되어 논의해가다보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좀 더 구체화되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종태 교수(명예교수 경영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들의 사회 기여와 인성회복을 위한 할 일이 없을까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인성교육 콜로кви움을 제안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자산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은퇴한 학자들의 자산적인 역할에 대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 붕괴라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콜로кви움을 통해 우리 명예교수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명예교수들의 내발성을 통해 이 콜로кви움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상당한 역량이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진교훈(명예교수 사범대 윤리교육과)

<주제발표문>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

왜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2. 인성이란 무엇인가?

3.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4. 인성교육의 여러 방향

1. 왜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사회를 비관적으로 보건 다소 낙관적으로 보건 아무튼 우리사회가 지금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로 말미암아 윤리의식이 상실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고 극도로 사회의 근본 질서가 문란하고 극도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각종 대중매체는 엄청난 인명살상과 독직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이 도덕적 가치관과 인간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생명존중과 인간성 회복은 일부의 언론과 종교지도자들이 한시적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발표자는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하고 근본적으로 교육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으나 인성교육이야말로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죽기까지 인간에게 부과된 숙명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성교육이 무엇인지를 물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의 개념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컨대, 도덕교육, 도의교육, 인격교육, 인간교육,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쉰사람교육, 품성교육 등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바람직한 특성이나 성격을 육성하는 것을 또는 올바른 행동(언어, 태도, 예절)이나 좋은 감정을 배양하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기, 가정의 위기, 인간성상실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사회해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물신(mammon)숭배와 허무주의와 상호불신과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이러한 세기말적 현상과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일종의 마피아조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법(法)계, 공직계, 정(政)계, 실업계, 학(學)계는 법(法)피아, 교(敎)피아, 군(軍)피아, 관(官;공무원)피아, 정(政)피아, 모피아(경제관료 조직), 철피아(철도청 공무원출신), 정(政)피아 등에 의한 유착관계로 한국사회는 온통 부패와 비리로 유린되고 있다. 농부도, 상인도, 일반시민도,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종교인들조차 돈에 걸신이 들어 기회만 있으면 공금(나라 돈)을 착복하거나 사리사욕을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디서나 불신이 팽배하다. 심지어 의식주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든다. 남이야 죽건 말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제도와 황금만능주의와 立身揚名에 눈먼 대다수의 學父母들의 잘못된 교육관과 가치관은 사람다운 사람을 이룩하는 인간(성)교육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고 대학입시준비와 취직시험에만 전념하는 사교육은 젊은이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외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간교육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국교육의 방향 상실과 교육철학의 빈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시안적으

로 단지 수단방법과 과정과 제도와 학습평가방식의 변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실험주의 내지 도구주의교육에만 몰두한 나머지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참된 목적을 찾는 데는 소홀히 하였고, 특히 共同善을 추구하는 인간을 위한 교육을 외면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교육은 미국의 실험주의 내지 공리적인 생활적응주의와 개인주의의 영향 아래 個人化와 大衆化의 자극을 받아, 교육의 수단방법과 교육과정과 기술면에서는 다소 발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너무나도 무시하여 왔다. 이른바 행동교육이라든가 새 교육의 방법은 우리나라 교육의 전통과 현실과는 너무나도 유리된 방법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적당주의에 물들거나 냉소주의에 빠져버렸다. 그 결과 한국의 학교교육은 인간성상실과 사람다운 교육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인간교육)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인 아동 청소년기에 받은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속에 자리 잡아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가치관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청소년시기의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나가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중시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人性教育)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학자들마다 ‘인성(人性)’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성교육의 방향 및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를 묻고 살펴보기로 하자.

2.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의 정의는 다양하다. 인성은 우리말사전에서는 ‘사람 됨됨이’, 또는 ‘사람의 성품(性稟)’¹⁾, 한영대사전에서는 인성이란 Human nature(인간성), Human instinct(인간본성), Humanity(인간성)등으로 나타나있다. Webster영한사전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Personality를 개성, 인격, 사람됨, 성격, 사람으로서의 존재, 인간 등으로 서술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persona에서 유래하나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도교사상에서 보는 선천적인 인격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특히 독일어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Person(인격)과

1) 성품(性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태주의자나 유물론자들은 인격과 사람됨을 性品 또는 성격이라고 비하한다.

는 달리 해석된다. 미국의 성격 심리학자 G. Allport(1897-1967)는 personality를 character(성격)으로 간주하고 성격(character)이란 후천적인 것으로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를 가진 개체내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역동적 조직"이란 말은 성격이란 항상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밖에 행태주의(behaviorism)를 주장하는 Skinner나 Freud등 유물론적 자연주의자들과 인간의 본성을 '백지'(tabula rasa)라고 주장하는 J. Locke 등 영국의 경험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하면 인성이란 후천적으로 인간의 환경과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난무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본질과 '사람다움'(das Menschliche)을 밝혀보려고 하는 철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의 본질, 즉 인간성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를 교육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張三植의 漢字大畧에서는 인성이란 사람의 본연의 성품(性稟)이라고 한다. 공자는 인성이란 인간의 本然의 성품이라고 하였고 사람의 기질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교육과 환경이 서로 상이하서 서로의 품격에는 차이가 생길뿐이라고 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사단(四端), 즉 仁에서 우러나는 惻隱之心, 義에서 우러나는 羞惡之心, 禮에서 우러나는 辭讓之心, 智에서 우러나는 是非之心인데, 이 仁義禮智는 선천적으로 누구나 타고나는 自有之情(원래 사람이 타고난 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孟자의 性善說의 논적(論敵)이었던 告子是 "인성에는 善과 不善의 나눔이 없다"(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고 하였다. 그는 인성을 물에 비유하고 동서의 구분이 없다고 했으나, 맹자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本性이 있음을 역설하고 인간의 바탕은 善의 性向이지만, 不善의 所行이 있는 것은 일시적인 외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동방에서도 서양의 소피스트(궤변론자)나 회의주의자의 사상과 유사한 荀子の 性惡說 등 인성에 관하여 소위 百家爭鳴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인성의 의미는 다양하고 그 나름의 의미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체로 인성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됴됨이, 또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3.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까닭은 인성에 대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의, 방향, 목적, 추구하

는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정의와 해석을 우선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을 全人教育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여기서 전인교육이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즉 지·덕·체의 통합 및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획일적인 지식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기되었다. 전인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만남, 즉 相互作用을 통해 人格이 성숙되고 문화의 繼承과 재구성을 하며, 창조하는 가치 지향적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추구한다. 요컨대 인성교육은 ①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는 점, ②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 ③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人格形成이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치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성스러운 가치, 두덕적 가치, 미적 가치, 생명가치, 재화가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제일가치로 보느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인간의 체(體)·덕(德)·지(智)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조화시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내리는 전통적인 교육학자들이 있다.

셋째, 바람직한 意思決定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보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개성존중(個性 尊重), 적극성 함양(涵養), 긍정적 自我觀, 未來指向性 등으로 提示하고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개별적 特性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인성교육은 성격지도(性格指導)로 간주하고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性格發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성격특징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지도의 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넷째, 철학적 인간학 내지 인격주의 윤리학을 주창하는 셸러(M. Scheler), 힐데브란트(D. Hildebrand), 헷센(J. Hessen), 코레트(E. Coreth) 등은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사람됨을 ‘總體的으로 이해’(Gesamtschau)시키려는 인격교육을 논하며, 교육학적 인간학을 내세우는 슈프랑거(E. Spranger), 보르노프(O. F. Bollnow) 등의 교육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격교육론이 있다. 이러

한 인격교육론은 오늘날에도 독일어문화권에서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자가 가톨릭적이라면, 후자는 프로테스탄트적이다.

다섯째, 인성교육을 性格教育과 같은 의미로 보는 입장이 있다. 행태주의자인 스키너(Skinner) 알포트(Allport) 등은 인성을 인간이 지니는 특정적인 反應 양식 내지 行動樣式의 개념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人格 과 인성과 性格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를 내세우는 듀이(J. Dewey)와 스키너 등의 행동과학 내지 행태주의의 교육론에서는 인성을 천성(天性)으로 보는 孔孟사상을 백안시하고, 전승되어온 가정교육과 孝교육을 무시한다. 그러나 성격심리학에서 성격 지도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① 긴장, 불안, 욕구, 좌절 등의 情緒的 문제, ② 대인관계, 사회활동, 오락 등의 사회적 행동 문제, ③ 신체적 질환, 불구(不具), 허약 등의 신체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反應 문제, ④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가족과의 관계에 관련된 갈등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성을 곧 마음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때 인성교육이란 心性教育으로,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價値教育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치교육의 경우는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와 사회적 차 원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實現하게 하는 교육이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예컨대 효(孝)교육, 예절교육, 생명존중교육, 인간의 존엄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절제, 책임감, 또는 예능교육을 인성교육의 중요과제라고 주장하 는 사람들도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의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 으로 인성교육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一義的으 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성교육은 기존의 認知的으로, 實利的으로 편 중된 교육상황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의(情誼)적 측면 및 인간의 本 性和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건전한 전인적인 인격으로 성숙함으로 써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 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이 지식+정서+행동을 제대로 가르치고 총체적인 인간의 고른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 간을 인간답게 ‘全人’적 인간으로 기르는 일이라고 보면, 인성교육은 전인적 인 인간교육을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人性을 형성함으로써 全人을 키워내는 과정이며, 여기서의 바람직한 人性은 건강한 自我를 바탕으로 자기성장을 통해 풍요한 內面世界를 가꾸면서 동시에 원만한 對人關係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요구를 적절히 내면화한 상태와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015년 1,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에 발표자는 동의한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친밀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간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접근해야하고 가정에서는 소통하기 위한 발판으로 밥상머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비방하는 댓글보다 공감하기를 배우게 하고 경청하기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언어적 기술을 배우는 인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생활에 접목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삶의 고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선악의 분별 능력이 되는 양심성찰이 살아 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다운 참된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사람다움(Anthropinon)의 의미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성의 교육은 또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인성교육의 여러 방향

발표자는 여기서 사람됨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전문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제시해보려고 한다.

사람다움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적시해 볼 수 있다.

- ①. 인간은 물음을 묻는 존재, 즉 이성적 존재이다.
- ②. 인간은 문화의 창조자이며 피조자이다.
- ③. 자유의지를 가진 윤리적 존재.
- ④. 고유한 내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
- ⑤. 탈중심성을 가진 불편부당한 존재,
- ⑥. 유토피아의식을 가지며 미래지향적이다.
- ⑦. 사회적 존재.
- ⑧. 상징적 존재. 미적 가치판단을 한다; 시, 가, 무
- ⑨. 수치를 아는 존재이다.
- ⑩. 비전문화된 존재;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계가 아니며,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상기한 인간의 특성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되며 보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전문분야별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존재이다. 문화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문화생활, 즉 의식주를 통해서 나타난다. 문제는 오늘날 문화가 인성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화고 있으며 인간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하강(몰락)의 원인규명과 문화재건이 인성교육의 과제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well-being과 인성교육의 상관성

2), 경제활동과 인성교육: 경제윤리, 배금주의의 극복, 양극화현상 해소

3) 예술분야와 인성교육 : 詩歌舞와 인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4), 과학기술과 인성교육: 테크노크라시와 인간의 기계화의 극복

5), 정치계와 인성교육: 공동선추구와 공생모색

6), 학교교육의 요체는 인지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7), 가정교육과 인성교육: 가정해체의 재건; 출산, 결혼, 이혼의 문제와 인성교육, 효교육

8),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미 윤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회윤리의 기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예절교육

9) 전통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성교육

10)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 well-dying, 생명윤리와 죽음준비교육

11) 법과 인성교육; 준법정신

나가는 말

앞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본 인성교육에 대한 주장들은 그 개념적 성격과 구체적 방법에서 엄밀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교육에 부정적 결과를 의도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주장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를 별도로 논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과 관점의 형성이 매우 복잡하고 그것 역시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의 근본은 사람을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깨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인격적 각성조성을 하는데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의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의 실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교육이야말로 모든 인성교육의 중심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갈등은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생겨나왔다. 잘못된 직업관과 직업(vocation)윤리 의식의 박약, 교육에 대한 편견, 사치와 허영과 낭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함부로 자리 매김하는 소위 一流病, 결과 중심주의 등은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대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부단한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에 대한 풍부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자기연마(鍊磨)와 풍부한 인간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폭넓은 교양(Bildung)서적의 독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참 인간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허승일(명예교수 사범대 역사교육과)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모두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덕을 쌓아야 함을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포괄적으로 보면 인간학 또는 인문학교육이다. 즉 전인적인 교



육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서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은 키케로다. 키케로는 스튜디오 휴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 ; 인간에 관한 연구, 인간교육, 전인교육)라는 말을 주창했다. 인간이란 원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선 호네스트(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4주덕이라고 해서 지의용인(智義勇忍)

이 네 가지 덕목을 실행하여 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동양의 공맹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즉 동양에서도 인의예지신이 나오는데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선의후리(先義後利 ; 선을 먼저 택한 후 이익을 택하라)다. 이것은 서양의 스토아사상에서 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덕을 먼저 쌓으라는 호네스트와 동일한 것이다.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덕을 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덕을 쌓으려면 사람에게 대해서만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해 균형있게 공부해야 전인적인 교육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주희의 주자학에서도 천문과 인문을 공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은 여기에 인을 추가해서 천지인을 말했다. 키케로 또한 스토아사상의 지의용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간만 알아선 안 된다. 다 골고루 알아야 한다고 했다. 천문 지리 등 다양한 자연현상 등도 공부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세 때 신앙애(信望愛) 세 가지가 추가되어 덕을 갖추기 위한 모두 7가지(지의용인신망애)가 서양윤리 사상의 기본항목으로 완성되었다.

그럼 덕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어로 아르헤테(arhete ; 뭐든지 뛰어난 것) 라틴어로는 비루투스(Virtus ; 남자가 남자답게 되는 것) 인데 즉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것이다.

결국 동양과 서양의 철학은 일치한다. 온고지신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옛날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다각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인규 교수(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 자연대 생명과학부)

오신 분들 모두 발언기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권(명예교수 법대 법학부)

“인성교육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 문제처럼 불법이 아닌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한국의 지도층에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계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 지도층 비리의 대부분들이 인맥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가 뇌물도 받게 되는 것이다. 뇌물과 같이 명확한 불법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이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일 뿐이지 위법 사항은 아니다. 인성교육을 논의할 때 그런 애매한 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공사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직업윤리 강의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법적인 매뉴얼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현복(명예교수 인문대학 언어학과)

“인성교육의 핵심은 언어교육이다.”

우선 인성의 정의가 필요하다. 인성은 ‘성품이다’ 또는 ‘인품이다’ 또는 ‘사람다운 것이다’ 등 인성에 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면서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요 생각의 몸뚱이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언어교육이야말로 인성교육과 관계가 깊다고 본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다. 관료 선발의 기준으로 ‘신’은 ‘몸’, ‘언’은 ‘말’, ‘서’는 ‘작문력’, ‘판’은 ‘판단력, 지능, 지혜’ 이런 것이다. 이처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려면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테면 말 중에서 반말이라는 것은 한국말만의 특징이고 이 반말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인성교육을 잘 시키려면 언어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오병남(명예교수 인문대학 미학과)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인문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 들여다봐야한다.”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육을 붙여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선 인성이란 말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개념인가 묻고 싶다. 허승일 교수님께 질의하겠다. 스튜디오 휴머니타스가 키케로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세시대 때 완성된 개념 아닌가? 인성교육이란 말과 아울러 인문교육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인성교육과 인문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문대학의 인문교육은 제대로 인성을 완성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들여다봐야한다.



이종상 (명예교수 미대 동양화과)

“제자들에게 연구비를 줄 때 내가 화폐인물을 그린 5천원권과 5만원권으로만 가지런하게 줬는데 그들은 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의미와 돈을 주는 스승의 마음과 배려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회사후소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동양화를 가르칠 때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제자들 일 시키면서 연구비(보수)를 줄 때 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5천원권과 5만원권으로만 찾아서 다달이 준다. 5만원권과 5천원권의 화폐인물을 내가 그렸다. 만원권은 안준다. 5천원권은 가장 되고 싶은 아들이고 5만원권은 가장 되고 싶은 엄마이다. 이것으로 인성교육을 시켜보고 있다. 이 돈을 줄 때 한 쪽 제자들에게 5만원권과 5천원권이 뒤죽박죽되어 섞인 채 주고 다른 한 쪽 제자들에게 5만원권과 5천원권을 지폐 종류별로 가지런히 모아서 줬다. 그렇게 7개월 동안 백만원 이백만원씩 줬는데 양쪽 그룹 아이들 모두 아무런 말이 없다. 돈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인성이 들어가야 그 돈이 제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제자들 중 그런 의미를 알아차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아내들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돈의 액수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돈이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인성교육의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동양화에선 제일 먼저 공자의 회사후소(繪事後素 :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는 이후에 한다)를 가르친다. 동양화에선 육조시대부터 화육법이 나온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다. 미인대회를 할 때 진선미로 순위를 가리고 미가 꼴찌인데 이걸 말도 안 된다. 자료가 공자님에게 아름다움이 무엇 이냐고 묻자 진과 선이 겸비된 연후에야 아름다움(미)가 있다고 대답하셨다.



김병동 (명예교수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그동안 서양의 자연과학만 뒤쫓아 가느라 인성과 관련된 가치관 정립을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자연과학 쪽에서 보는 인성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많은 먹거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일반적인 과학지식과 연구에만 전념하느라 정신없어서 인성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갖추는 것이다 하는 생각에 빠져 인성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자들은 서양의 지식을 따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 정립을 미처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서양조차도 자연과학 연구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가치관 정립의 시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정인 (명예교수 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인성교육은 이론이나 분석이 아니고 체험과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인성을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어머니는 한학을 하셨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니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에게 인성을 체험적으로 교육받았다. 이와 같이 인성은 이론이나 분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대학 내의 성희롱 같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성을 경험시키고 실천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역지사지를 가르치려면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험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효택(명예교수 공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우리 기성세대가 부와 사회적 지위 같은 걸모양만 갖추지 말고 내면적으로 훌륭한 교양과 인품을 갖춘 모습을 경비한 모습을 보여줘야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려면 교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학교 총장님도 우리 학생들을 선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인물들이 별로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학생들에게 물으면 아직도 이순신, 세종대왕이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분들이 언제적 분들인가? 결국 교양 있고 배려할 줄 아는 리더가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한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을버스를 타고 캠퍼스를 들어오다 보면 노약자석이 무시되고 있고 학생들이 모르는 교수들이나 어른들에게 자리양보 잘 안한다. 학생들이 알면서 배려 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복도에서 웃으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겠지’ 하고 학생들에게 말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받아들입니다.

정창우 (교수 사범대 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은 미성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성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입장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명예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인성교육에서 자기 자신과의 절제, 성실의 측면도 중요하고 효도나 배려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적 품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도덕성 등 사회 정의 측면에서 공평성 형평성과 같은 시민적인 덕성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사람다움이란 것이 무엇이고 사람다움을 길러주는 것이 인문교육이라고 한다면 인성교육과의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인성교육의 도구로서 인문교육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명예교수님들의 말씀 중에 인성교육은 체험이라는 말씀, 교양도 필요하다는 말씀 등과 같이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뇌가소성이라 하여 성인들의 인성도 계속 형성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포함한 전생애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차용(명예교수,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선 우리들 학자의 힘뿐 아니라 정치 환경과 국제 환경을 형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아카데미한 토론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학자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선 정치, 국제 등 다양한 환경과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인성 문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본다.

이정상(교수 의대 의학과-흉부외과학교실)



“인성을 결정하는 전두엽은 25세까지 성숙하므로 성인들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인성은 공부등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임상으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다. 심장이식을 해보면 이식 받을 환자와 혈액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동일하게 맞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식 후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남성 환자에게 여성의 심장을 이식하면 수술 후 여성적인 성격으로 바뀐다. 또한 전두엽에 질환이 생기면 성격이 변태적으로 바뀐다. 사람의 인성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경 받는 종교지도자가 뜻아이가 같은 성격으로 바뀐다.

이처럼 성격과 인품이 결정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25살까지 계속 성숙해간다. 따라서 인간은 25살까지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의학교육의 경우도 너무 세분화되어가고 있다. 환자들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치료를 하다보면 도구화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한 가지 체험을 말씀드리겠다. 한 할머니가 병원 대기실의 의자를 혼자 정리하고 있어서 관리원을 시키면 되는데 왜 힘들게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녀들이 휴게실에 와서 쉬다가 다 가고 할머니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성이 되어있고 자녀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일 텐데 가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인성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다. 결국 1등 지상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2등 3등도 가치가 있는 것이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회계층 간에 인성측면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교훈(명예교수 사범대 윤리교육과)

오늘 다양한 전공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오셨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가네자와 공과대학의 경우 공대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키고 관련 독서교육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한 바 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준(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지난 7년 동안 혼자 고독하게 인간존중 판타지를 집필하며 우리사회 인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 인성교육 집담회에 합류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또한 오늘 첫 회인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제1회 인성교육집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맡은 **이인규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수석부회장(자연대 생물학)**은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심각하게 붕괴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신구세대가 기존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롭게 재정립해 나가야하는지에 관해 서울대 명예교수 차원에서 할 일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담회를 처음 제안한 **최종태 명예교수(경영학)**는 “명예교수들의 사회 기여와 인성회복을 위한 할 일이 없을까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인성교육 콜로кви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진교훈 명예교수(윤리교육)**는 먼저 우리사회가 지금 윤리의식의 상실과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그 근본 원인이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외면하는 교육현실에 있다고 말했다.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성’은 한마디로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서 ‘인성교육’의 가장 적절한 정의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

는 것'이라는 인성교육진흥법상의 것을 제시했다.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법론들은 배금주의의 극복, 기술문명에서의 인간 소외 극복, 공동선의 추구, 지식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는 사회윤리교육, 생명윤리의 이해, 준법정신 함양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집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각자의 다양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차례로 피력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허승일 교수(역사교육과)**는 인성교육은 인문학 교육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키케로라고 밝히며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모두 인간이 인간 다와 지려면 덕을 쌓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음 마이크를 잡은 **최대권 명예교수(법학부)**는 인성교육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이를테면 전관예우 문제처럼 불법이 아닌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킬 지 난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현복 명예교수(언어학과)**는 자신의 전공이 언어학인데 인성교육의 핵심은 언어교육이라고 말했다.

오병남 명예교수(인문대 미학과)는 자신의 소속대학이 인문대학인데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인문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상 명예교수(미대 동양화과)는 제자들에게 연구비를 줄 때 자신이 그린 화폐인물이 새겨진 5천원권과 5만원권으로만 준 사례를 들면서 젊은 세대들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인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동양화 교육에서도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동 명예교수(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는 그동안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만 뒤쫓아가느라 인성과 관련된 가치관 정립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명예교수(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체험적인 인성교육을 예로 들면서 인성교육은 이론이나 분석이 아니고 체험과 경험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전효택 명예교수(공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대학생들이 기본 인성을 많이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이 자세는 되어있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부와 사회적 지위 같은 겉모양만 갖추지 말고 내면적으로 훌륭한 교양과 인품을 갖춘 모습을 경비한 모습으로

본보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창우 교수(사범대 윤리교육과)는 인성교육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음을 밝히며 그동안 인성교육에 대해 고민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이 집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진교훈 명예교수님을 비롯 많은 명예교수님들의 의견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인성교육은 미성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성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차용 명예교수(공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리들 학자의 힘만으론 이 거대한 국가사회를 변혁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환경과 국제환경을 형성하는 다양한 주제들과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상 교수(의대 의학과-흉부외과학교실)는 과거 임상의 시절의 경험과 에피소드들을 예로 들면서 인성을 결정하는 전두엽은 25세까지 성숙되어가므로 성인들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성의 수준은 학력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상준(인성교육집담회 간사, 오피니언리더 대표) 간사는 지난 7년 동안 인간존중 판타지를 홀로 고독하게 써오며 인성문제를 고민해왔는데 훌륭한 서울대명예교수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무척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힌 후 제 2회 인성집담회를 기약하며 사상 첫 집담회를 마쳤다.